

문화특가



부안농기센터 벼직파재배 전시회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진)는 20일 생산벼와 노동력 절감효과가 있는 신기술 직파재배법을 보급하려고 농업인 및 선도농가, 전북도·시군 담당공무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벼 직파재배 전시회를 가졌다

이날 전시회는 기존의 담수표면산파, 무논골짜기 등의 직파재배 단점을 보완하고 기계 이앙재배의 장점을 접목한 새로운 직파재배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유형별, 기종별 직파재배 단점을 개선한 새로운 파종기와 개선책이 소개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전시회에 참석한 백신재 송춘석씨는 "5~6월에 삼자모기르기 작업 등 일이 많아서 꼼꼼도 못했으니 무논전파 후 밭작물과 축산에 일손을 나눠 쓸 수 있어서 앞으로 무논전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교월동새마을부녀회 환경정화활동

김제시 교월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이영이)는 지난 20일 성산공원 일원에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바쁜 영농철에도 불구하고 회원 30여명이 함께한 이날 환경정화활동은 동헌·나아 및 향교 등 교월동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자원이 밀집해 있어 평소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성산공원 주변 대청소를 통해 깨끗한 교월동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날 참여자들은 거리에 방치된 쓰레기들을 치우고 불법으로 게시되어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홍보물들을 제거하는 등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도 열성수범하며 환경정화에 힘을 쏟았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축산업 허가제 교육

김제시는 지난 20일 김제시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관내 한우육, 젓소, 닭, 오리농가 등 축산업 종사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따른 축산 관련종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동물복지 및 축산환경, 축산관련 법규, 가축양역 및 질병관리 등 축산농가와 축산 관련 업무종사자가 반드시 숙지하고 실천해야 할 내용 등을 설명하였다

축산업 허가제란 축사면적, 소독·방역시설, 교육수료 등 일정기준을 갖춘 농가만이 축산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3년 2월에 도입됐다

축산업 허가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축산업 허가 및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등록제 대상자는 10만원, 축산허가 종사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여성새일센터, 취업박람회

정읍 여성새일하기센터(이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 20일 여성문화관에서 2016년 희망의 내! 일! 찾기! 미니취업박람회를 가졌다

이날 박람회에는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 100여명과 지역 내 5개 기업체((주)플러스원, (주)세진산업, (주)카라, (유)진하정공, 에스엘전사전북지사)가 참여했다

업체들은 현장에서 현장면접을 실시해 모두 8명을 채용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특히 직업상담과 면접이미지 컨설팅,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 교육 및 직업세계 체험(면접화장품, 네일아트, 천연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 큰 호응을 얻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올해 현재까지 296명에게 취업을 알선하는 등 구인·구직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모악산축제 성황리 종료

'신비의 길을 걷다' 주제로 3일간 금산사 일원에서 행사 다양

'모악산 신비의 길을 걷다'라는 주제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금산사 일원에서 열렸던 제9회 김제모악산축제가 신록으로 물든 봄의 마지막을 아쉬워하는 상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가운데 내년을 기약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014년에 이어 3년만에 개최된 이번 축제는 벚꽃을 테마로 하는 여느 지역축제와는 달리 모악산 고유의 콘텐츠 중심으로 차별화하여 관광객들의 호평을 이끌어 냈다

20일에는 '유네스코 등재 기념 농악경연'을 시작으로 축제가 열리는 금산면 소재 금산중학교 연극부 학생들이 준비한 '동화, 희망을 꿈꾸다'라는 특별기획공연과 생활문화

예술동호회의 '행복충전페스티벌' 등 지역주민 주도의 프로그램이 관광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진행되었다

21일에는 주말을 맞아 500여명의 등산객이 '명산 모악산 등반대회'를 통해 모악산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시간과 숲속 음악회를 통한 힐링의 시간을 가졌으며, '4대 종단이 참여한 모악산 순례음악제'에서는 종단대표자, 합창단, 신도 등 120여명이 참여하여 모악산을 종교 성지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굳건히 하고, 모악산이 세계평화지대이자 전세계인이 찾아오는 순례코스로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 열린 '친정엄마들의 사랑의

하모니' 공연에서는 '모악산이 어머니의 산'이라는 의미가 담긴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전했다

22일 '폐막 대동 퍼레이드'에는 모악산축제에 걸맞은 국악인 오정혜와 나그네의 협연으로 폐막을 아쉬워하는 관람객들에게 더 나은 내년을 기약하기도 하였다

또한 축제기간 내내 상설체험마당에서는 금산면 명인(임성안 불교목조각장)의 재능기부와 불날 속개떡과 풀꽃나무놀이, 지역주민의 중고 물품거래의 장인 '하네다 장터' 등이 열려 지역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축제로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혜정 국장은 18개 반, 연인원 3,682명에게 한국어교육은 물론 30개 프로그램, 연인원 11,083명에게 가족통합교육을 실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 및 자립역량강화 기반 구축에 힘써왔다

부안다문화가족센터 김혜정 국장, 지사 표창

한국어교육 등 다양한 사업으로 결혼이민자 조기정착에 기여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안정적인 정착과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바람직한 사회참여에 기여한 공로로 부안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혜정 사무국장(사진)이 지난 20일 제9회 다문화 어울림 축제마당에서 지사 표창을 받았다

김 국장은 지난 2009년부터 부안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국장으로 재직해 오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 부안다문화가족의 건강하고 안정된 가족생활 영위와 당당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온 정성을 쏟아왔다

특히 김국장은 18개 반, 연인원 3,682명에게 한국어교육은 물론 30개 통합교육을 실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 및 자립역량강화 기반 구축에 2009년부터 현재까지 가족에 대한 상담, 다문화 가족의 갈등

예방 및 해소에 안정적인 조기 정착에 기여했다

김국장은 또 결혼이민자 특성에 맞는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은 물론 취업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 요양보호사, 방과 후 중국어 강사, 다문화이해강사, 보육교사 3급, 바리 스타 중국주요 실무과정, 간호조무사, 피부미용사, 포크아트강사반, 운전면허 취득반등 110명 수료 및 자격증 취득, 현재까지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족 250명에게 취업을 알선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이영식 협의회장은 지역인재 육성에 앞장서는 등 고충사람이 남다르다

이영식 민주평통 부안군 협의회장 지역 인재육성 장학금 기탁 모범

총 8000만원 지역사회 귀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안군 협의회 이영식 협의회장이 미래 젊어질 청소년들의 지역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고충사람이 남다르다

지난해 7월 민주평통 부안군 협의회장에 취임한 후 2번째 장학금을 기부했다. 또한 지난 2011년부터 매년 1000만 원씩 계속해서 총 80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 지역사회에 감동을 주고 있다

이 협의회장은 특히 지난 5월 막내 아들 이창훈씨의 결혼식을 마친 후 새 식구를 맞는 탄생의 의미로 작지만 가족의 정을 담아 기탁해 의미를 더했다

이영식 협의회장은 콘크리트 생산전

문기업 경영인으로 올해 환갑이 넘은 나이에 전주대 경영학부에, 부인은 국문학부에 동시에 입학, 공부에 전념하고 있는 민학도이다

특히 지난 4월에는 2016년 전북도 유공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표창을 수상했다

이영식 협의회장은 상용레미콘 외에도 4개의 기업을 운영하면서 인력 100여 명을 고용하는 등 부안군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이영식 협의회장은 민주평통 부안군 협의회장으로 재임하면서 북해안 1인 릴레이 시위 이태주인들기 추진, 부안인삼축제 때 평양예술단 공연 및 통일가원 열 매달기 추진 등 한발 앞선 통일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7월 1일부터 맞춤형 보육 시행

12시간 이용가능한 종일반과 월15시간의 맞춤형으로 나뉨

오는 7월 1일부터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정읍시가 이달 20일부터 영아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맞춤형 보육은 하루 12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하루 8시간에 월 15시간의 긴급 보육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으로 나뉘어 보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반 아동으로, 3~5세반에 재원 중인 아동은 맞춤형 보육 서비스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종일반(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12시간) 이용 대상은 맞벌이와 한부모·다자녀·다문화 등이고 그 외

는 6시간 맞춤형(오전 9시~오후 3시)과 긴급보육바우처(월 15시간, 이월 가능)를 이용하면 된다

대상자는 기간 내 증명서류를 갖춰 아동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포(www.bkjo.go.kr)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이와 관련 "시행에 앞서 종일반과 맞춤형 자격을 판정, 1차로 지난 19일까지 각 가정에 통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정사유가 있을 경우 6월 29일까지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맞춤형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사전에 꼭 자녀의 보육료 자격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and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오전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귀걸이 갈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